CHANNEL

2026 NOVEMBER Vol.286



신입 삼정인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삼정 KPMG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CHANNEL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벽호(031-946-098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Channel 웹페이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Channel'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장

04 **GKP 컨퍼런스 특집 I** 글로벌 전문가가 한자리에,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다!
06 **GKP 컨퍼런스 특집 II**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
글로벌 세제환경 변화와 투자전략 살펴봐
08 **Emerging Trends** IPO 시장의 변화, 고객사와 함께 만드는 성장기업 생태계
10 **Market Reader** 게임 산업의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다! 게임 기업의 생존 전략은?
12 **Team Story** AI로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과 품질 높이는 AI SOX 솔루션팀
14 **Client+** 글로벌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S2W
16 **Expert's Advice** AI가 바꾸는 콘텐츠 산업, 기업의 대응 전략은?
18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시사·경제 용어 사전

행복한 일터

20 **People First I** 2026 신입 회계사 & 컨설턴트, 큰 성장을 향한 힘찬 날갯짓
24 **People First II** 새로운 도전의 시작! 신입 삼정인을 소개합니다
26 **글로벌 Biz 특파원** 글과 영상으로 만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인도네시아 Korea Desk 편
28 **이동규의 두줄칼럼** ABC의 비밀
30 **心 Care** '손절'의 시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성
32 **Samjong News** '제9회 회계의 날', 회계 업계 발전 기여한 임직원 11명 표창 수여 外

Cover Story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정현종, 「방문객」 중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삼정KPMG가 새로운 가능성과 꿈을 품은
신입 회계사와 컨설턴트를 새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설렘 가득한 첫걸음부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도전까지, 신입
삼정인들의 새로운 시작과 빛나는
성장을 응원합니다!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글로벌 전문가가 한자리에,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다!

'2026 삼정KPMG GKP Conference' 개최

지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2026년 GKP Conference(GKP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GKP 컨퍼런스는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GKP(Global Korea Practice) 네트워크 간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와 메인 컨퍼런스, 고객사 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전문성과 경험을 나누고, 협력 기회를 모색한 GKP 컨퍼런스 현장을 소개한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교류와 협력의 시간

2026 GKP 컨퍼런스에는 13개국의 KPMG Partner(파트너)와 Korea Desk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삼정KPMG 김교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GKP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는 가운데,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이 축적해 온 전문성을 고객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함께 모색하는 기업 맞춤형 글로벌 전략

11월 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컨퍼런스 일정이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멕시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영국, 독일, 체코 등 8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투자 인센티브 및 세제 변화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와 함께 해외 파견 임직원의 세무 이슈와 관리 방안, 국가별 규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별도 세션도 마련해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세미나 이후에는 각국 Korea Desk와의 일대일 미팅을 통해 기업별 상황과 니즈에 맞춘 해외 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71개 기업에서 110여 명이 참가를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편, 컨퍼런스 기간에는 각국 KPMG 파트너와 Korea Desk 전문가들이 주요 고객사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GKP 네트워크 간 협력 강화 및 한국 기업 성장 방안 모색

11월 3일 GFC 9층 교육장에서 열린 메인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과 새로운 기회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GKP 네트워크에 새롭게 합류한 멤버를 소개하고,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협력을 통해 달성한 성과를 공유했다. GKP는 2012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최근 3년간 2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2025 GKP of the Year'로 선정된 싱가포르 Korea Desk의 김희수 Director에게 기념패를 수여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M&A Corridor와 지역별 딜 소싱 현황 및 주요 파이프라인을 공유하며 국가 간 M&A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또한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의 한국 기업 해외 투자 진출 전략, ESG R&A 손민 상무의 ESG 정보공시 로드맵, MC본부 마영준 S.Manager의 Global FTA 솔루션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진행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후 Americas, EMA, ASPAC 등 지역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각 지역의 Korea Practice 현황과 크로스보더 비즈니스 기회를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CST(Client Service Team) 미팅을 통해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살펴봤다.

KPMG 미국의 마이클 메한나 파트너는 "GKP 컨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팀 간 협력이 만들어내는 시너지와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한국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첨단 제조업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에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다양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투자 인센티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이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KPMG 필리핀의 갈리시아 로하니 C 파트너는 "새롭게 GKP 네트워크에 합류한 구성원으로서, 이번 컨퍼런스는 각 회원사의 한국 시장 진출 전략과 노하우를 직접 듣고 국가 간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필리핀은 성장하는 소비시장과 젊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영어 구사 인력, 다양한 산업 분야의 투자 기회를 갖추고 있다. 현지 비즈니스 및 규제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삼정KPMG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강화된 GKP 네트워크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사업 확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도 GKP 네트워크 간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별 시장 환경과 주요 이슈를 반영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한국 기업에 실질적인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CONTACT US

BD&Markets 신경철 부대표
02-2112-0788 kshin@kr.kpmg.com

BD&Markets 임지예 S.Manager
02-2112-3449 jiyerhim@kr.kpmg.com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 글로벌 세제환경 변화와 투자전략 살펴봐

삼정KPMG는 11월 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멕시코·베트남·싱가포르·인도·영국·독일·체코 등 8개국의 현지 KPMG 전문가와 삼정KPMG의 Korea Desk 관계자가 연사로 참여했다. 각 나라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과 주요 세제 변화를 짚어보고, 투자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등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아울러, 해외 주재원 세무 이슈와 자회사 통합 세무 관리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도 제공했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각국 Korea Desk와 일대일 미팅을 통해 기업 맞춤형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변화되는 미국 세제 환경 속, 새로운 전략 모색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 시행에 따라 2026년 미국 세제 환경은 미국 내 투자와 생산,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요 변화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R&D 비용 즉시공제와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복원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용 부동산에도 100% 비용공제가 도입되는 등 투자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 둘째, Section 163(j)의 이자비용 공제한도 계산 방식 변경으로 자본집약적 기업의 공제 여력이 확대될 수 있으나, 해외자회사 관련 소득의 처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셋째, BEAT 세율 조정과 GILTI에서 NCTI(Net CFC Tested Income) 체계로의 전환 등 국제조세 규정이 개편돼 한국 본사와 미국법인, 해외 관계사 간 거래 및 글로벌 세부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미국은 Federal·State·Local 정부 차원에서 R&D Tax Credit, Job Creation Tax Credit, Property Tax Abatement, Sales & Use Tax Exemption 등 다양한 세액공제와 투자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반도체·태양광 등 첨단 제조·에너지 산업은 별도의 연방 세액공제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혜택 적용 여부는 산업, 진출 형태, 투자 지역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

미국 Korea Practice

최근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확대되면서 공장 설립, M&A, 국제조세, 이전가격,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현지 사업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 Korea Practice는 한국 기업의 문화와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현지 Tax, Audit, Advisory 전문가들과 협업해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의 관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시의성 있는 정보 공유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ontact: New York Tax 최원일 Partner (bchoi@kpmg.com)
Audit 이수연 상무 (sooyeonlee@kpmg.com)
Los Angeles Tax 구동근 Partner (donggeunkoo@kpmg.com)
Audit 곽훈 Partner (hkwak@kpmg.com)
Atlanta Tax 홍정기 Partner (chong@kpmg.com)
Audit 정효식 Partner (hyosikjeong@kpmg.com)

투자 확대 속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독일

최근 독일과 유럽 경제의 주요 화두는 ‘산업 경쟁력 회복’과 ‘전략적 자립’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높은 비용 부담에도 독일은 유럽의 최대이자, 세계 3위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EU의 산업정책 재편과 독일의 투자 확대에 따라 새로운 사업 기회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인프라, 교통·모빌리티 및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배터리, 자동차·모빌리티, 전자·IT, 에너지 및 산업기술 분야의 한국 기업은 신규 투자뿐 아니라 현지 기업 인수나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한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EU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규정(AML)이 2027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일정한 경우 EU 내 지주회사와 그룹 전체로 규제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한국 기업은 독일 및 EU 내 자회사·지주회사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고, M&A와 지배구조 개편 시 AML 적용 여부와 그룹 차원의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독일 Korea Desk

독일 Korea Desk는 한국 기업과 독일 현지 전문가를 연결하고, 한국 본사와 독일 현지 간 비즈니스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 고객 지원을 넘어 독일의 산업 변화와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세미나와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독일에서 비즈니스 지원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Contact: 이동익 Manager (dongiklee1@kpmg.com)
Barbara Sillich Partner (BSillich@kpmg.com)

인도 제조업 육성 정책과 투자 인센티브 활용 전략

인도 정부는 India Semiconductor Mission(ISM)을 통해 반도체 제조·패키징(OSAT/ATMP)·설계(Fabless)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젊은 청년인구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조선·자동차·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조업에 별도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발표하고 있다.
반도체 인센티브와 관련해 인도 정부는 2026년 ISM 2.0을 발표하며,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해 약 13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인도 투자 이후 현재 시생산을 시작했으며, 그 밖에도 여러 기업이 인도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금액 규모 및 고용 인원을 충족한 기업에도 지원범위가 다양해지기에, 신규 진출 기업은 투자지역과 규모를 고려할 때 인센티브 적용 요건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관세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최근 인도 시장에서는 현지 생산 확대와 정부 인센티브 활용, 공급망 구축 및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인도를 단순한 수출시장이 아닌 글로벌 생산 및 성장 거점으로 바라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도 Korea Desk

주로 델리(구르가온) 사무소를 거점으로 첸나이, 푸네, 벵갈루루 등 인도 주요 지역의 한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외부감사, 세무신고 및 조사 대응, 딜 자문 등이며, 신규 진출 기업의 법인 설립과 관련 인센티브 활용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인도대사관 및 KOTRA와 협력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기업의 재무 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세무 이슈와 실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Contact: 문지호 Director (jihomoon1@kpmg.com)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IPO 시장의 변화, 고객사와 함께 만드는 성장기업 생태계

벤처캐피털(VC)의 회수시장에서 기업공개(IPO)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IPO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상장 심사와 상장 이후 시장 평가의 영향력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최근 거래소는 상장 심사 과정에서 기술력보다 사업성과 실적의 지속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라 IPO는 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자리 잡고 있다.



IPO 의존도 높아지는 VC 회수시장

벤처투자종합포털에 따르면 VC 회수 방식에서 IPO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4.3%에서 2026년 상반기 37.9%로 상승했다. 반면 매각을 통한 회수 비중은 감소하며 두 방식 간 격차가 줄고 있다. 전략적·재무적 투자자층이 제한적이고 세컨더리 시장의 유동성이 낮은 국내 상황에서 IPO는 VC의 주요 회수 경로로 자리잡고 있다. 기술특례상장과 성장성특례상장 확대로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도 높아지면서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 중 VC 투자기업 비중은 2023년 54.4%에서 2025년 73.4%로 증가했다. IPO는 거래소 심사와 시장 수요에 영향을 받는 만큼, 상장 기조와 공모시장 상황은 기업의 자금조달뿐 아니라 VC의 회수 일정과 투자수익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술력보다 사업성과 실적 검증이 중요해진 IPO 시장

코스닥에서 기술평가특례와 성장성특례로 상장한 기업의 비중은 2018년 25.7%에서 2026년 상반기 56.3%로 확대됐다. 그러나 2026년 1~8월 예비심사 청구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반면, 신규 상장은 46건에서 25건으로 45.7% 감소했다. 상장 수요는 이어지고 있지만 심사와 검증은 한층 엄격해진 것이다.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예비심사를 철회하거나 미승인된 기업의 83%는 매출 안정성, 실적 변동성, 성장성, 수익성 등 실적 요인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기술특례상장이 기술의 독창성과 경쟁력에 주목했다면, 이제는 목표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 판매처, 생산 역량, 자금 여력은 물론 기술의 매출 전환 시점과 가능성까지 입증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실적 부진과 상장 승인 취소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거래소의 사업성 검증이 강화됐으며, 금융당국도 2025년 3월 상장 예정 법인의 재무제표 검증을 강화했다.

투자 초기 단계부터 상장 이후까지 고려한 통합적 설계 필요

높아진 상장 문턱에 대응하려면 IPO를 투자·조달, 상장 준비, 공모·상장, 상장 유지·회수의 네 단계로 나눠 관리해야 한다. 기업가치와 계약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고, 상장 준비 과정에서는 매출의 실재성, 재무정보의 신뢰성,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과 자본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공모 단계에서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과 안정적인 수급을 고려하고, 상장 이후에는 실적과 기업가치, 주가와 유동성을 관리해야 한다. 초기 투자 계약의 상환 조건은 상장 심사에서 부채 분류 문제로, 과도한 공모가는 보호예수 해제 이후 주가 하락과 수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추정 실적은 수주 잔고와 계약 조건, 생산 능력에 근거해야 하며, 확정 계약·수주 가능성이 높은 매출·잠재 매출을 구분하고 고객 의존도, 회수 불투명 채권, 누적 재고 등에 대한 관리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VC와 IPO를 둘러싼 4대 이슈

모험자본 공급 확대	투자계약 구조의 건전화
·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 벤처투자펀드 제도 개편 및 자금조달 절차 완화 · 국민성장펀드·초장기기술 투자펀드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목적별 분리형 계약 체계와 집합적 동의권 도입 · RCPS(상환전환우선주)에서 CPS(전환우선주) 중심으로 투자 관행 개선 · 전환권을 조정하는 리픽싱 개선 · 창업자 연대책임 제한 및 IPO 노력 의무
상장 진입 요건 정교화	**상장 유지 및 주주 보호**
· 실적 중심의 상장 심사 강화와 선별 기조 · 맞춤형 기술특례 확대 · 오버행 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 제도 도입	·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및 예외 허용 · 상장 퇴출기준 강화 ·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 코스닥 승강제 도입 검토 · 저PBR기업 공표 제도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VC와 IPO를 둘러싼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방향

① 투자·조달	② 상장 준비	③ 공모·상장	④ 상장 유지 및 자금 회수
· 자금 공급 확대 · 후기·대형 딜과 전략산업 중심의 선별적 기조	· 맞춤형 기술특례 등 상장경로 확대와 예측 가능성 제고 · 기술성 외 사업화·실적· 내부통제 및 기업계속성 검증은 정교화	· 개별 기업별 보호예수·거래량·주가 수준 등에 따라 실제 매각까지 소요 시간은 기업별로 차별화 · 공모가 합리성과 장기 기관수요의 중요성 확대	· 상장 후 기업가치, 주가, 유동성 확보 중요성 점증 · 투자자 보호와 시장 규율 강화
투자 초기부터 상장 후 회수까지 통합적인 설계 필요			
조달금액 극대화와 높은 밸류에이션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와 IPO 친화적 계약 구조 기반으로 전환	① 매출의 실재성 및 재무 신뢰성, ② 기술과 사업화 검증, ③ 자본구조와 이해관계 정비 등 상장 심사에 대한 준비	기관투자자 등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 및 수급 상황을 고려한 안정적 가격 형성	시장 안착·회수 실현·재투자 중심으로 전환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VC 역시 상장 적합성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투자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피투자기업의 실적 지속 가능성과 사업화 수준을 바탕으로 상장 요건 충족 여부와 예상 기간을 평가하고, 보호예수 해제 일정과 시장 유동성을 고려한 단계적 매각 계획 및 포트폴리오별 회수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등을 활용해 장기 기관 수요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PO가 VC 회수의 주요 경로로 유지되는 가운데, 거래소의 선별적 심사와 신속한 진입·엄정한 퇴출을 지향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은 기술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실적 창출 능력을 입증하고, VC는 투자 단계부터 사업화 경로와 실적 전망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성공적인 IPO를 결정짓는 선제적·전문적 준비와 시장 신뢰

IPO는 벤처기업에는 성장자금 조달과 시장 신뢰 확보의 기회이며, VC에는 투자 성과를 회수해 새로운 혁신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의 연결고리다. IPO는 단순한 상장 승인이 아니라 상장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상장 이후에도 실적, 성장 전략, 공시, 투자자 소통을 통해 기업가치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PO 준비는 상장 요건 충족을 넘어 재무보고와 내부통제,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관리, 성장 전략과 핵심성과지표(KPI),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와 보상 체계 등을 상장회사 수준으로 정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기업 내부 역량만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상장 준비 초기부터 회계·법률·세무·가치평가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예상 심사 쟁점과 준비 공백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결국 성공적인 IPO는 상장 승인을 넘어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과와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안착할 역량을 갖추는 데서 완성된다.

*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IPO지원센터 강인혜 부대표
02-2112-0363
ikang@kr.kpmg.com

경제연구원 노승환 책임연구원
02-2112-0296
seunghwanroh@kr.kpmg.com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게임 산업의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다! 게임 기업의 생존 전략은?

2026년 게임 산업은 이용자 기반이 재편되고 IP(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AI(인공지능)가 제작 방식과 사업 영역을 동시에 바꾸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중국 게임의 경쟁력 확대와 비용 상승도 경쟁 구도에 변화를 더한다. 국내 게임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콘텐츠와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연결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와 IP, 게임 본질의 재편

2025년 국내 게임 이용률은 50.2%로 전년 대비 9.7%p 하락했으며, 2021~2025년 연평균 성장률(CAGR)도 -8.4%를 기록했다. 이러한 감소세 배경에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숏폼 등 대체 여가의 확산에 따른 라이트 이용자의 이탈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정 장르와 작품에 깊이 몰입하는 코어 이용자의 영향력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코어 이용자는 게임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서 나아가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며 게임 생태계를 넓힌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 생태계의 무게중심은 다수의 라이트 이용자가 형성하는 폭에서 충성도 높은 코어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깊이로 이동할 전망이다.

이용자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이용자를 유입시키고 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하는 IP(지식재산권)의 가치도 커지고 있다. 게임사는 기존 IP의 인지도와 팬덤을 바탕으로 흥행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게임 IP를 굿즈·공연·웹툰 등으로 확장해 새로운 수익원과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5년 매출 상위 10개 게임이 모두 인기 IP 기반 시리즈였으며, 국내 게임사들도 웹툰·만화·애니메이션 등 검증된 IP의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게임 제작 혁신과 사업 확장을 이끄는 AI

이용자와 IP가 게임 산업의 성장 기반을 이룬다면, AI는 이를 구현하는 제작 방식과 서비스의 변화를 이끈다. 국내 게임사들은 이미지·영상 생성, NPC(Non-Player Character) 고도화, 데이터 분석 등에 AI를 적용해 개발·운영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넥슨의 AI 기반 캐릭터 코디 추천 서비스와 넷마블의 AI 기반 게임 운영 이상 감지 시스템 등의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제작 속도 향상과 비용 절감이 곧 콘텐츠의 완성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AI로 만든 저품질 콘텐츠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게임 슬롭(Game Slop)'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효율 개선과 함께 콘텐츠의 품질과 이용자 경험을 높이는 AI 활용 전략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AI는 제작 혁신을 넘어 게임사가 축적한 기술을 다른 산업으로 확장하는 계기도 제공한다. 최근 게임사의 게임엔진, 3D 콘텐츠, 물리 시뮬레이션 기술은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등 피지컬 AI의 학습·검증 환경을 구현하는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크래프톤은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NC AI는 게임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가상 세계 구현 기술을 국방·조선 분야의 월드모델과 피지컬 AI 솔루션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활용이 확대되면 게임사의 사업 영역이 실물 산업으로 넓어지고, 제조·방산·모빌리티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이나 합작법인 설립 등 협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나아가 가상 환경과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제공하는 AI 플랫폼 사업으로 진출할 경우, 글로벌 빅테크·로보틱스 기업과 협력하는 동시에 경쟁하는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주목해야 할 게임 산업 6대 핵심 질문

사용자와 IP, 본질의 재편

숏폼·유튜브 등 대체 엔터테인먼트 확산 속에서 게임 이용자 수는 실제로 줄고 있는가? 이용자의 게임 소비 방식은 라이트층과 코어(Core)층을 중심으로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검증된 IP 기반 대작으로의 이용자·자원 집중이 얼마나 강화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Q1.** 게이머 수 감소의 실체와 이용자 생태계의 변화는?
- **Q2.** 저명 IP 기반 대작 게임 중심 구도는 유효한가?

AI로 넓어지는 전선

게임 산업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이 피지컬 AI 시장의 핵심 자산으로 재평가되면서, 게임 엔진은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의 주요 훈련 환경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시에 게임 산업 내부에서도 AI는 실험 단계를 넘어 제작과 유통 파이프라인 전반에서 실질적 성과를 검증받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 **Q3.** 게임사의 피지컬 AI 진출 현황과 배경, 산업에 미칠 변화는?
- **Q4.** AI는 게임 산업의 기회일까? 위기일까?

산업을 압박하는 외부 변수

2026년 게임 산업을 압박하는 여러 외부 변수가 산재하고 있다. 중국 게임사들은 자본력과 제작 역량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AI 인프라 경쟁이 촉발한 비용 상승은 개발비와 운영비 양쪽에서 산업의 수익 구조를 압박한다.

- **Q5.** 중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 확대 현황과 향후 전망은?
- **Q6.** 비용 상승은 게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게임 산업의 경쟁 압력 확대, 중국의 부상과 비용 상승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리는 한편, 기존 게임 시장의 경쟁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2025년 중국 게임 시장 매출은 약 3,50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 넘게 증가했으며, 자체 개발 게임의 해외 매출도 204억 5,500만 달러로 10% 이상 늘었다. 중국 게임사들은 대규모 내수시장에서 축적한 자본과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모바일·미니게임부터 서브컬처, AAA급 콘솔·PC 게임까지 글로벌 흥행의 범위를 넓혀왔다. 정부의 문화산업·게임 수출 지원과 자국 게임 중심의 판호 발급도 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제작 자동화, AI NPC, 개인화 서비스 등에 AI 기술을 접목하며 개발 효율과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에는 고유한 콘텐츠와 차별화된 게임 경험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을 이끌어야 할 과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비용 상승은 게임사의 수익성과 이용자의 구매 여력을 동시에 압박한다. 제작비와 운영비 증가는 게임사의 수익성을 낮추고, 게임 타이틀과 콘솔 기기의 가격 상승은 이용자의 구매 부담을 키운다. 스팀(Steam)의 게임 평균 판매 가격은 2021년 12.7달러에서 2026년 16.9달러로 높아졌으며, 주요 콘솔 제조사도 기기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할인 시점까지 구매를 미루는 '페이션트 게이머' 소비 행태와 구독형 서비스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게임사는 이러한 변화가 판매량과 신규 이용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게임별 특성에 맞춰 출시 가격과 할인 시점, 구독 서비스 제공 여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핵심 자산을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연결하는 실행력

이용자 기반의 재편과 AI의 확산, 경쟁·비용 압력에 대응하려면 국내 게임사는 이용자와의 관계, IP, 개발·운영 기술 등 핵심 자산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용자의 몰입과 참여를 이끌어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IP의 가치를 여러 콘텐츠와 서비스로 확장해 수익 기반을 다져야 한다. AI 역시 도입 자체보다 콘텐츠의 품질과 이용자 경험, 개발·운영 효율을 얼마나 높이는지가 중요하다. 피지컬 AI 등 새로운 사업은 기존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실제 수요를 검증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게임사와의 경쟁과 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해, 자사의 강점이 뚜렷한 분야와 시장에 자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 결국 앞으로의 성장은 이용자가 선택할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고, 콘텐츠와 기술 역량을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연결하는 실행력에 달려 있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ICE2본부 노정한 전무
02-2112-0693
jroh@kr.kpmg.com

경제연구원 류승희 책임연구원
02-2112-7469
seungheeryu@kr.kpmg.com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Audit 신상품 TF와 AI Center, AX본부가 함께하는 'AI SOX 솔루션팀'

AI로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과 품질 높이는

AI SOX 솔루션팀

내부회계관리제도(K-SOX)는 기업이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설계·운영하고, 이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는 제도다. 최근에는 기존 내부회계관리 업무의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성과 평가 품질을 높이기 위해 AI(인공지능)·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삼정KPMG는 2026년 8월 'AI SOX 솔루션'을 출시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 업무 효율화와 평가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Audit 신상품 TF와 AI Center, AX본부가 협업하는 'AI SOX 솔루션팀'을 소개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증빙은 AI가 읽고 판단은 전문가가 해야

대규모 횡령 사고 이후 자금부정통제 공시가 의무화되고 적용 대상도 확대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K-SOX)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으로 평가 범위가 해외 종속회사까지 넓어졌지만, 담당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증빙 수집과 검토에 따른 실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샘플 중심의 평가 방식만으로는 통제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담당자별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의 AI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내부회계 영역에서는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AI 분석 결과를 감사인이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결국 AI가 증빙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예외사항을 식별하는 한편, 최종 판단은 전문가가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내부회계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

AI로 반복 업무 줄이고, 핵심 판단 지원하는 AI SOX 솔루션팀

AI SOX 솔루션팀은 Audit 신상품 TF가 AI Center, AX본부와 함께 개발한 'KPMG AI SOX 솔루션'의 현업 활용과 비즈니스 활성화를 담당하는 Cross-Functional팀이다. Business 대응 총괄을 맡는 Audit 신상품 TF, Digital·AI 관련 기술 및 실무 대응을 담당하는 AX본부, 솔루션 개발·운영을 담당하는 AI Center와 감사본부별 솔루션 정착을 이끄는 회계사들로 구성돼 있다.

AI SOX 솔루션은 K-SOX 제도의 전 운영 주기에 AI를 적용해, 기존 수작업과 표본 중심의 운영 방식을 데이터와 리스크 기반의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내부 혁신 플랫폼이다. 삼정KPMG의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 평가 기준과 AI·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증빙자료 수집·분석부터 운영평가와 보고까지 내부회계 운영 전반을 효율화하도록 설계됐다. 지난 8월 감사팀을 대상으로 출시됐으며, 비감사 고객사를 위한 자문용 솔루션도 함께 공개됐다. 감사정보 관리를 위해 감사용과 자문용으로 구분되지만, 주요 기능은 동일하다. AI가 통제별 평가 목적과 기준을 분석하고 증빙자료를 검토해 통제 수행 여부를 분석하며 예외사항을 식별한다. 이어 운영평가 결과와 보고서 작성도 자동화한다. 또한 폐쇄망과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할 수 있고 다국어 문서 분석도 가능해,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에도 유용하다. 다만 모집단의 완전성 검증, 경영진의 판단이 필요한 통제, 최종 결론 도출 등은 전문가가 책임지는 Human-in-the-Loop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AI는 반복적인 증빙 대사와 문서화 등을 지원하고, 전문가는 주요 판단과 검토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AI SOX 솔루션팀은 ERP·전자결재·문서관리시스템과 연계해 AI Agent가 모집단 추출부터 증빙 수집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표본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단계적으로 전수·상시 운영평가(Continuous Monitoring)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현장 지원 및 증빙 클렌징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실제 수요에 맞춰 IT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복 업무는 AI로 자동화하고, 전문가는 복잡한 판단과 고위험 영역 검토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AI SOX 솔루션팀'의 주요 활동

01 AI 기반 내부회계 평가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

- RCM을 기반으로 통제 목적과 테스트 절차를 이해하고, 설계·운영평가를 위한 AI 프롬프트를 자동 생성
- PDF·엑셀·이미지 등 다양한 증빙을 AI가 분석하여 통제 속성 충족 여부와 예외사항을 식별하고, 설계·운영평가 조서 초안을 자동 작성

02 감사 현장의 AI 활용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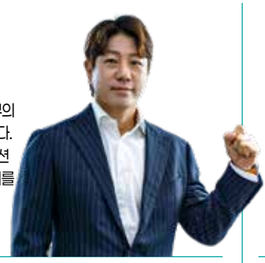
- 사용자 가이드 배포, 시연 교육, 본부별 현장 지원(RCM 정비, 증빙 업로드, AI 운영평가 방법 안내)
- ADC 인력을 통한 증빙 클렌징 티켓팅(STS) 지원: PDF 샘플별 분할, 파일 형태 변환, 용량 축소 등 사전 데이터 정비
- 출시 이후 현장 피드백을 반영한 지속 개선: 이메일 파일(msg, eml)의 본문과 첨부파일, 구버전 엑셀(xls), 이미지가 포함된 엑셀까지 증빙으로 업로드·분석 가능하도록 기능 고도화

03 비감사 고객 대상 서비스 사업화

- 표준제안서, 구독형·설치형 계약서, 독립성 검토(DPP), 가격정책 등 영업 패키지를 마련해 감사본부에 배포
- 고객 니즈에 따라 설치형 및 구독형 2가지 도입 옵션을 제안하고, 고객사 증빙 기반 시연 진행

구성원들의 한 마디!

전현호 전무 (팀 리더)
hyunhojeon@kr.kpmg.com



AI SOX 솔루션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품질을 함께 높이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솔루션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박창남 전무
changnampark@kr.kpmg.com



내부회계 평가에서는 방대한 증빙을 검토하고 문서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됩니다. AI를 통해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감사인이 예외사항과 고위험 영역을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전무
sanghoonpark@kr.kpmg.com



AI SOX 솔루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려면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실제 업무 환경과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ERP와 전자결재, 문서관리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확대해 증빙 수집부터 분석까지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김연정 전무
yeonjungkim@kr.kpmg.com



새로운 솔루션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현장 구성원들이 업무에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지원을 통해 활용 경험을 축적하고, AI가 절감한 시간을 전문적인 판단과 위험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글로벌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S2W

에스투더블유(S2W, 대표 서상덕)는 AI(인공지능)와 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 가능한 가치로 전환하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이다.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환경에서 축적한 기술과 도메인 전문성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더 큰 비즈니스와 사회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기술을 넘어 현실의 맥락까지 이해하는 AI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S2W를 소개한다.

AI 인텔리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S2W는 비정형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AI 기술력을 토대로 국가안보·사이버보안·AI 전환(AX)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NSS) 연구실에서 축적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9월 설립됐다. S2W는 다크웹(Dark Web)·딥웹(Deep Web)·텔레그램(Telegram) 등 정보의 형식이 각기 다르고 난해한 언어와 고유의 문맥이 존재하는 각종 히든 채널에 산재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정제·분석하며 기술력을 발전시켜왔다.

안보부터 기업 AX까지, S2W의 핵심 솔루션

S2W가 시장에 공급하는 솔루션은 크게 세 종류다. ▲공공과 정부 기관용 안보AI 플랫폼인 '자비스(XARVIS)' ▲기업 및 기관용 보안 AI 솔루션 '퀘이사(QUAXAR)' ▲도메인 특화 온톨로지(Ontology) 플랫폼 'SAIP(S2W AI Platform)' 등이다.

먼저, 안보 분야에서 출시한 첫 번째 제품이 공공·정부기관용 안보 AI 플랫폼 '자비스(XARVIS)'다. S2W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다크웹 특화 언어모델 '다크버트(DarkBERT)'를 탑재한 자비스는 여러 사이버 우범지대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해 특정 사건 및 관련 범죄자의 프로파일링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정교한 자연어처리(NLP) 시스템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인텔리전스를 도출한다. 최근에는 자율형 수사 AI 에이전트 'DRI(Deep Research Investigator)'를 적용해 이용자의 질의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적합한 조사 전략과 탐지·분석 도구를 스스로 조합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S2W는 자비스를 통해 고도화한 기술력과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시장에도 진출했다. 기업 및 기관용 보안 AI 솔루션 '퀘이사(QUAXAR)'는 공격표면관리(ASM)·디지털 리스크 보호(DRP)·위협인텔리전스(TI)를 통합해 기업 내부 시스템만으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외부 위협 요소에 대한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과 공격자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 유출·사칭·해킹 등 빠르게 지능화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복잡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그 안의 맥락과 관계를 해석하는 S2W의 AI 기술은 엔터프라이즈 AX(Enterprise AX)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2024년 출시돼 지속적인 고도화를 거듭하고 있는 온톨로지(Ontology) 기반 의사결정 운영체제(OS) 'SAIP'가 대표적인 사례다. SAIP는 사내외로 분산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별 특성과 상황적 맥락, 기업 내부의 업무 규칙·절차, 도메인 전문가의 지식까지 체계적으로 결합해 실행 가능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세계가 주목한 기술력,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약

이처럼 기술의 적용 범위와 사업 영역을 넓혀온 S2W는 공공과 민간에 걸쳐 고른 고객 기반을 확보하며 국내외에서 사업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의 '100대 기술선도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2024년부터 3년 연속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025년 9월에는 코스닥(KOSDAQ) 시장에 상장했다. 일본·싱가포르·대만·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그리스 정부기관에 제품을 수출하며 아시아·중동·유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으며, 독자 기술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하는 '안중근 애국기업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제기구 및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S2W는 2025년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민관협력 프로그램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Gateway Initiative)'의 한국 최초 파트너로 선정됐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가 주관하는 '락드쉴즈(Locked Shields)' 훈련에도 2025년부터 2년 연속 참여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기술 협력사로 선정된 데 이어, 최근에는 오픈AI(OpenAI)의 파트너 프로그램에도 합류하며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S2W는 이러한 국내외 사업 성과와 대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으로서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2


3



4



5

1. S2W 본사 로비 **2.** 2025년 9월, 코스닥 상장식에서 **3.** S2W 서상덕 대표
4. 싱가포르 안보·치안 산업 전시회 'MTX 2026' 참가 **5.** 인터폴 사이버범죄국장, 부국장 S2W 본사 방문 **6.** S2W 일본법인 개소식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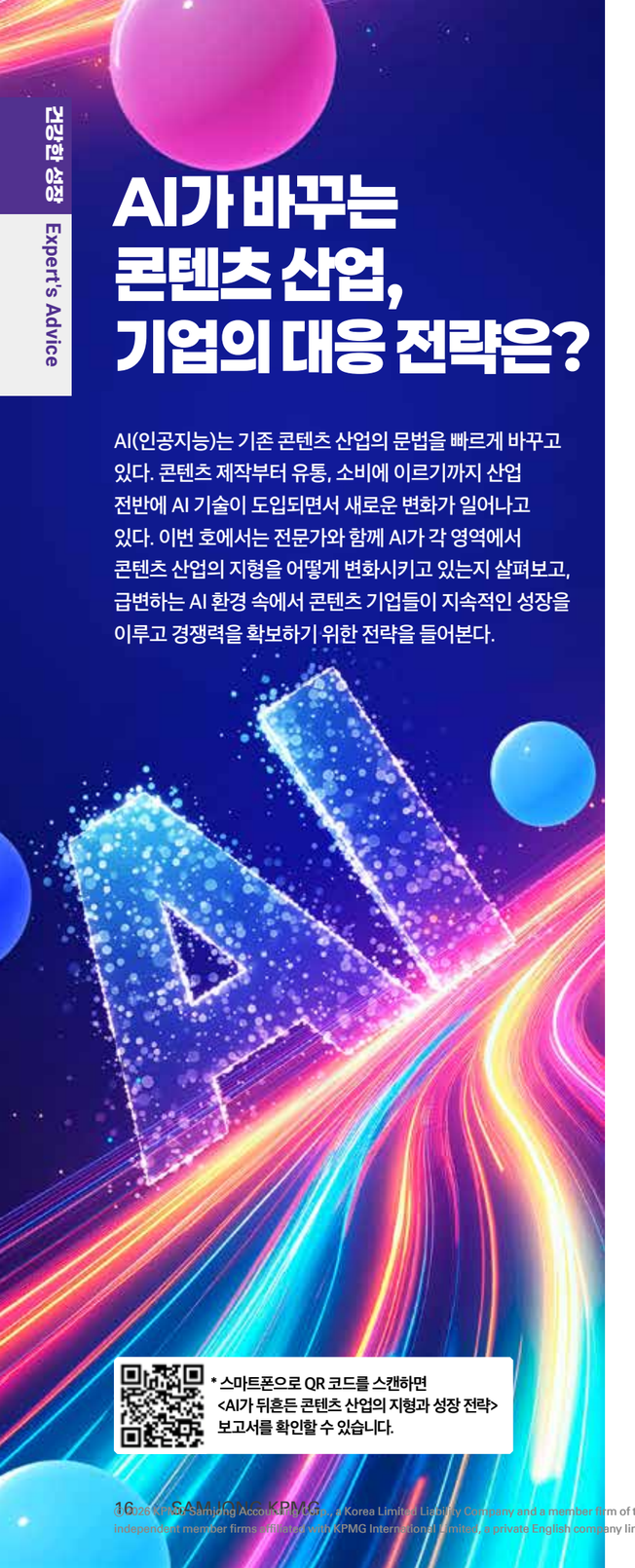


6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AI가 바꾸는 콘텐츠 산업, 기업의 대응 전략은?

AI(인공지능)는 기존 콘텐츠 산업의 문법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AI가 각 영역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급변하는 AI 환경 속에서 콘텐츠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들어본다.



*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AI가 뒤흔든 콘텐츠 산업의 지형과 성장 전략>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AI 기술이 콘텐츠 제작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나요?

AI 기술의 발전은 콘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음악 분야를 살펴보면, 전문 스튜디오나 숙련된 뮤지션 없이도 누구나 음원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I로 구현된 가상 아티스트가 실제 음악 차트에 진입하는 사례도 있는데, AI 기반 가상 컨트리 음악 아티스트로 알려진 브레이킹 러스트(Breaking Rust)의 곡 'Walk My Walk'는 2025년 빌보드 '컨트리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AI 기반 제작 기술은 미디어 기업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026년 AI 기반 영화 제작 기술 스타트업 인터포지티브(InterPositive)를 인수하며 관련 역량의 내재화에 나섰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방식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영상 생성 스타트업 힉스필드(Higgsfield)는 제작 도구와 AI 오리지널 콘텐츠의 공개·유통 채널을 결합한 '힉스필드 오리지널스'를 구축하고, 15명의 인력이 약 2주간 제작한 95분 분량의 AI 장편영화 〈헬 그라인드(Hell Grind)〉를 선보이며 단기간·소수 인력 중심의 새로운 영상 제작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Q 콘텐츠 유통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유통 구조 역시 빠르게 변화 중입니다. 과거 플랫폼이 콘텐츠를 나열하고 이용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AI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취향과 맥락에 맞는 콘텐츠를 먼저 추천하며 탐색을 지원하는 역할로 진화 중입니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는 개인의 청취 이력과 선호도를 기반으로 음악을 선곡하고, 곡과 아티스트에 관한 설명을 AI 음성으로 제공하는 'AI DJ'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AI 챗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콘텐츠 탐색의 출발점이 기존 플랫폼에서 AI 인터페이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볼까"라는 질문이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앱이 아니라 AI 챗 서비스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이용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GEO(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라는 콘텐츠 최적화 접근법이 새로운 유통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가 검색 결과 상위 노출을 목표로 한다면, GEO는 생성형 AI의 답변에 자사 콘텐츠와 정보가 인용·추천되도록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생성형 AI가 콘텐츠를 정확하게 검색·인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작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는 콘텐츠 산업의 제작·유통·소비 전 영역의 기존 문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편

기존 콘텐츠 산업

- ▶ 전문 스튜디오·소수 크리에이터 중심
- ▶ 높은 진입 장벽, 대규모 자본 및 제작 인력, 기술 집약적 구조
- ▶ 언어적 제약에 따른 글로벌 확산 갭 존재
- ▶ 전통 채널 편성, 큐레이션 중심 배포
- ▶ 방송국, 극장, 플랫폼 등이 게이트키퍼로 역할
- ▶ 수동적 일방향 콘텐츠 소비
- ▶ TV에서 스마트폰으로 확장된 콘텐츠 소비 환경
- ▶ 팬덤은 일부 마니아층 중심의 문화적 현상

콘텐츠 제작 / 콘텐츠 유통 / 콘텐츠 소비

AI 기반 콘텐츠 산업

기존 구조의 변화	새로운 경쟁 요소
▶ 개인 창작자가 주요 생산 주체로 부상 ▶ 기업은 M&A·파트너십 기반 AI 내재화를 통해 제작 역량을 집중 강화	▶ AI 스튜디오형 제작 플랫폼의 등장 ▶ 원천·합성 데이터의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름
▶ AI 번역·현지화로 언어 장벽 해소, 글로벌 유통 범위 확대 ▶ 플랫폼 AI 알고리즘의 유통 주도권 강화	▶ AI 챗(AI Chat)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유통 채널 부상 ▶ 콘텐츠 신뢰도 및 품질 큐레이션 역량이 차별화 요소로 부각
▶ 소비자가 AI UGC 제작에 참여하는 프로슈머로 확장 ▶ 소비자 참여 확대에 따른 팬덤의 조직화·경제화 및 영향력 확대	▶ AI 기반 UGC 플랫폼, AI 디바이스 기반 몰입형 콘텐츠 소비 확산 ▶ 콘텐츠 과잉 공급 환경 속 차별화된 IP 중심의 팬덤 확보가 중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Q 그렇다면, 소비 부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AI의 확산은 콘텐츠 소비와 창작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UGC(User Generated Content,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콘텐츠 생태계도 참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창작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팬아트·2차 창작·리믹스 등 팬 창작물의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커뮤니티 활성화와 플랫폼 체류 시간 증가, 팬덤 결속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업들도 전략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팬이 직접 창작하고 교류하는 '팬투팬(Fan-to-Fan)' 모델을 제시했으며, 카카오는 '사람 중심의 AI'와 '글로벌 팬덤 OS'를 2026년의 양대 성장 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Q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요?

AI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콘텐츠 기업은 우선 AI 기반 제작 역량을 확보하고, 데이터와 IP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는 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체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AI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핵심 모델과 제작 도구를 신속히 도입하고, 본업과의 시너지 및 수익화 가능성이 높은 AI 스타트업을 선별적으로 인수해 역량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 전략도 재설계해야 합니다. AI 챗 인터페이스를 새로운 콘텐츠 유통 채널로 인식해 LLM(대규모언어모델) 플랫폼과의 제휴·연동을 확대하고, GEO 전략을 통해 구조화된 데이터와 신뢰도 높은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AI 추천 생태계에서의 노출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한편 콘텐츠 공급이 급증할수록 플랫폼의 품질 관리와 사회적 책임도 중요해졌습니다.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와 유해 콘텐츠 관리, 사용자 보호 체계의 구축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플랫폼의 신뢰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신뢰를 토대로 소비자와 팬덤이 콘텐츠의 생산·확산·수익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IP·크리에이터·팬덤이 결합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는 개별 작품을 넘어 이용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해서 확장·진화하는 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ONTACT US

ICE2본부 오헌창 부대표

02-2112-7478

heonchangoh@kr.kpmg.com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시사·경제 용어 사전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산업화로 심화하는 기후 변화는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 주목받는 용어와 강력한 성능을 갖춘 AI 기술을 일컫는 용어에 대해 알아본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 1.5℃ 초과, 오버슈트(Overshoot)

"2024년 처음으로 지구의 연평균 기온 상승 폭이 1.5℃를 넘어선 뒤, 세계는 이제 평균 온난화수준이 1.5℃인 20년 기간에 진입했다."

지난 9월 2일, 유엔환경계획(UNEP)은 '오버슈트 제한(Limiting Overshoot)' 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수년 내 지구 온난화 수준이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가능하면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속도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버슈트(Overshoot)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이 1.5℃를 일시적으로 넘어선 뒤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다시 하락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UNEP는 1.5℃를 초과하는 온도가 높을수록 또 1.5℃를 넘어선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람과 자연,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커



지고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설 위험도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UNEP는 온실가스 배출을 빠르게 줄여 기온 상승의 정점을 낮추고, 이후 가능한 한 빨리 1.5℃ 아래로 되돌리는 것을 새로운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제거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고도화된 AI 프론티어 AI(Frontier AI)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론티어 AI(Frontier AI) 역량 확보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장관은 지난 10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이버안보를 대표 분야로 꼽으며, "지표상의 세계 3위를 넘어 진정한 AI 3강을 달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프론티어 AI는 현시점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과 범용적 능력을 갖춘 최첨단 인공지능(AI)을 의미합니다. 특정 기술이나 모델 구조를 지칭하기보다는 기존 AI의 성능 한계를 뛰어넘으며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있는 AI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프론티어 AI를 구현하는 데 활용되는 고성능 AI 모델은 '프론티어 모델(Frontier Model)'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학습하며, 언어 이해와 추론, 코딩, 이미지·영상 생성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현재 오픈AI(OpenAI), 구글(Google), 앤트로픽(Anthropic) 등 글로벌 AI 기업들이 프론티어 모델 개발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기술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방·공공 등 전략 분야에서 독자적인 프론티어 AI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AI 주권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하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Happy Workplace

행복한 일터

20 **People First I**
2026 신입 회계사 & 컨설턴트, 큰 성장을 향한 힘찬 날갯짓

24 **People First II**
새로운 도전의 시작! 신입 삼정인을 소개합니다

26 **글로벌 Biz 특파원**
글과 영상으로 만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인도네시아 Korea Desk 편

28 **이동규의 두줄칼럼**
ABC의 비밀

30 **心 Care**
'손절'의 시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성

32 **Samjong News**
'제9회 회계의 날', 회계 업계 발전 기여한 임직원 11명 표창 수여 外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입문 교육 현장 스케치
2026 신입 회계사 & 컨설턴트, 큰 성장을 향한 힘찬 날갯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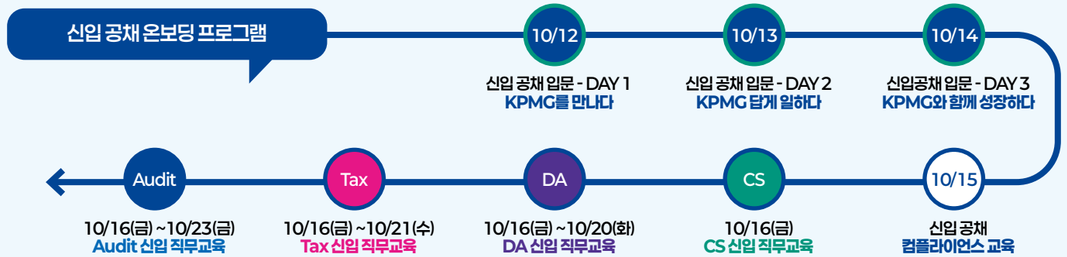
삼정KPMG가 신입 회계사와 신입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약 2주간의 입문 및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삼정KPMG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 삼정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원활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On-Board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Everyone a Leader'라는 인재상을 바탕으로 신뢰를 주고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리더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올해는 신입 회계사와 컨설턴트가 함께 입문 교육에 참여했다. 그럼, 약 2주간 이어진 교육 현장을 함께 살펴보자.

'People First', 인재가 소중한 자산인 삼정KPMG가 미래를 이끌어 갈 신입 회계사 282명과 신입 컨설턴트 48명을 새 가족으로 맞이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 회계사와 컨설턴트들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2박 3일간의 입문 교육을 받았다. 올해 입문 교육은 처음으로 신입 회계사와 신입 컨설턴트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교육을 받으며 삼정인으로서 새로운 시작과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성장을 기대했다. 교육은 삼정KPMG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 'KPMG를 만나다'를 시작으로 삼정인으로서 일하는 방식과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다져보는 'KPMG 답게 일하다' 그리고 향후 비전을 그려보는 'KPMG와 함께 성장하다'로 구성됐다.

Day 1. KPMG를 만나다

신입 삼정인들이 입문 교육을 통해 프로페셔널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입문 교육 첫날은 'KPMG를 만나다'를 주제로, '조직을 이해하고, KPMG Professional로 첫걸음을 시작합니다'라는 메시지 아래 삼정KPMG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과 자신의 강점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먼저 삼정KPMG의 역사와 비전, 조직 문화 등을 살펴보며 법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신입 삼정인들은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직업 윤리와 책임 의식을 배우고, 스페셜리스트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어진 'Value Race' 세션에서는 KPMG의 5가지 핵심 가치인 Integrity, Excellence, Courage, Together, For Better를 배우고, 팀별 미션을 수행하며 그 의미를 체득했다. 오후에는 '프로페셔널의 첫걸음, 나의 성장 스토리' 세션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분석하고 향후 커리어를 설계하며, 전문가로서의 성장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서로의 강점과 성향을 공유하며 자신과 동료를 이해하고,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첫날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조별 미션인 'Value Shorts'였다. 신입 삼정인들은 앞서 배운 KPMG의 5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조원들과 함께 각자의 고민과 해석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KPMG의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팀원들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Day 2. KPMG 답게 일하다

삼정KPMG의 일하는 방식은 어떨까? 둘째 날은 'KPMG 답게 일하다'를 주제로, 'KPMG의 일하는 방식과 협업을 경험합니다'라는 메시지 아래 법인의 업무 문화와 협업 방식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첫 시간은 선배 삼정인들이 들려주는 '슬기로운 삼정생활' 세션으로 시작됐다. 인재 지원 및 복지 제도를 살펴보고,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업무 노하우를 들으며 신입 삼정인들이 입사 전부터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인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진 비즈니스 매너 교육에서는 사회인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매너와 기본 소양을 익히며, 프로페셔널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살펴봤다.

이어 신임 파트너들이 신입 삼정인들을 위해 강연에 나섰다.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 노하우부터 신임 파트너가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까지,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신입 삼정인들은 앞으로의 커리어를 어떻게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해 보는 시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삼정KPMG 김교태 회장이 입문 교육 현장을 찾아 신입 회계사와 신입 컨설턴트를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김교태 회장은 법인의 비전을 소개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신입 삼정인들의 입사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시간에는 신입 삼정인들을 위한 환영 만찬 'Cheers to New Beginnings!'가 열렸다. 신입 회계사 부모님들의 깜짝 축하 영상이 상영돼 의미를 더했으며, 김교태 회장의 축하 건배사를 시작으로 퀴즈와 럭키드로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신입 삼정인들은 함께 웃고 즐기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

[신입 연수 영상 스토리]

*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2026 신입 회계사&신입 컨설턴트들의 열정적인 연수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입문 교육이란 [ ]이다

#시작 #네트워킹 #Life #첫걸음 #함께 #출발점 #설렘 #TeamTogether #OneFirm #성장 #미래설계 #행복 #추억 #감동 #새출발 #삼정인 #프로페셔널 #기대 #신호탄 #동기 #인연 #소속감 #애사심 #커리어시작 #즐거운시작 #만남 #KPMG #성장스토리

Day 3. KPMG와 함께 성장하다

입문 교육 마지막 날은 'KPMG와 함께 성장하다'를 주제로, '현업에서의 성공적인 시작을 준비합니다'라는 메시지 아래 신입 삼정인들이 앞으로의 성장 방향과 비전을 구체화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나의 성장 드로잉' 세션에서는 5년 후 삼정KPMG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KPMG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성장 비전을 정리했다. 신입 삼정인들은 각자의 미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다채로운 색을 더하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여정을 그려봤다.

입문 교육을 마친 신입 회계사와 컨설턴트들은 10월 15일 윤리의식, 품질관리 규정, 독립성 등에 관한 교육을 받으며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다짐을 다졌다. 이어 16일부터는 Function별 직무 교육에 참여해 선배들로부터 업무의 기본기와 실무 지식을 배우며 현업에 필요한 역량을 쌓았다.

한편, 삼정KPMG는 신입 회계사들의 안정적인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3개월간 본부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3년간 진행되는 주니어 집중 육성 교육 과정인 'Global Elite Program(GEP)'을 통해 연차별 맞춤 교육을 지원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과정을 수료한 인원에게는 법인 주관 시상식과 포상을 통해 성과를 격려한다. 이제 2주간의 입문 및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입 삼정인들. 선배들의 든든한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각자의 가능성을 펼치며 삼정KPMG와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한다.

"신입 삼정인 이번 연수 어땠나요?"

슬기로운 삼정생활



"선배 삼정인분들과 함께한 '슬기로운 삼정생활' 세션을 통해 법인 생활에 유용한 업무 꿀팁은 물론, 복지와 자기계발 등 신입 삼정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뉴 파트너 성장 스토리



"신임 파트너분들이 들려주신 '뉴 파트너 성장 스토리'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파트너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업무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성장 스토리까지 접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비즈니스 매너 교육



"비즈니스 매너 교육을 통해 사회 초년생이자 전문직 종사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중요한 매너를 배울 수 있어 좋았어요. 특히 따로 시간을 내어 배우기 쉽지 않은 내용을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동기들과 배울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KPMG의 5가지 Values



"'Value Race' 시간이 즐거웠어요. 서로 어색하고 긴장된 상황에서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다른 팀과 경쟁하는 게임을 하면서 금세 친밀감과 유대감이 생겼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이었지만, 함께 협력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성장 드로잉



"교육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나의 성장 드로잉'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의 강점을 KPMG의 가치와 연결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고민하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 뜻깊었어요."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직업윤리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직업윤리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만큼, 집중도 높은 강의 구성 덕분에 더욱 유익하고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새로운 도전의 시작!
신입 삼정인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신입 회계사와 컨설턴트! 설렘과 기대 속에 첫걸음을 내딛는 이들은 어떤 꿈과 각오를 품고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신입 삼정인들을 만나 앞으로의 목표와 포부를 들어본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삼정인"



❶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힘들거나 지치는 순간에도 맛있는 음식과 함께 '오히려 좋아!'라는 긍정의 마음으로 금세 회복합니다.
❷ ADC 인턴으로 근무하며 좋은 분들을 만나며 꼭 함께 일하고 싶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입사를 확정 짓고서는 실감이 나지 않았고, 심장이 매우 떨렸어요. 이후 삼정KPMG에서 보내온 축하 화환을 보며, 누구보다 기뻐하신 부모님의 모습에 정말 행복했어요.
❸ 믿고 맡길 수 있는 회계사이자,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삼정인이 되고 싶어요. 지금은 선배님들께 많은 도움과 배움을 얻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 역시 지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고 선배님들께 받은 도움과 경험을 후배들에게 기꺼이 나눠주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서로 배우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People First'와 'Together'의 가치를 실천하고, 삼정KPMG와 함께 성장하는 회계사가 되겠습니다.
❹ "처음의 설렘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성장하자!"



김혜준 Associate (CM1)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함께 성장하는 삼정인"



❶ 맛집 탐방과 운동을 좋아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씩 해결해 가려고 노력합니다.
❷ 지난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삼정KPMG의 'People First' 문화를 직접 경험했어요.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구성원을 존중하는 문화에 매력을 느꼈고, 이곳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 입사를 선택했어요. 이제는 정식 구성원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에 더욱 설레고 기쁩니다.
❸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삼정인'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주저하지 않고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일할수록 믿음이 가는 회계사로 성장하겠습니다.
❹ "처음의 설렘과 배우려는 마음으로,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자!"





민상 Associate (Tax4)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Question

① 간단한 본인 소개
② 삼정KPMG에 입사한 이유와 소감은?
③ 앞으로의 포부는?
④ 새로운 시작에 나선 나에게 한마디!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믿고 먼저 찾는 전문가!"

❶ 운동과 여행, 맛있는 커피를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제 장점은 밝은 에너지와 좋아하는 일에 깊이 몰입하는 점인데요, 함께 일할 때 열정이 넘쳐 '맑눈광'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❷ 'People First' 문화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입사를 선택했습니다. 입사가 확정됐을 때는 감사함과 설렘이 컸고, 입문 교육 중에 받은 세심한 배려와 존중은 앞으로의 회사 생활을 더욱 기대하게 했습니다.
❸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믿고 먼저 찾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늘 배우는 자세로 업무 역량과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쌓겠습니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 신뢰를 쌓고, 동료에게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고객에게는 중요한 순간에 먼저 떠오르는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❹ "오랫동안 꿈꿔온 삼정KPMG의 일원이 된 기쁨을 잊지 말고,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즐기자!"





정준희 Analyst (Deal Advisory3)

"초심 잃지 않고 늘 배우는 자세로, 동료들과 성장 이뤄가는 컨설턴트"



❶ 운동을 좋아해 펜싱 즐기고, 쉬는 날에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잘 들어주는 편이고, 복잡한 상황에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편입니다.
❷ ESG 분야의 전문성을 쌓으며 다양한 산업의 과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합격 문자를 받고도 믿기지 않아 문자와 메일을 몇 번이나 확인했던 기억이 나요. 그동안 준비해온 시간이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에 뿌듯했고, 부모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입사가 실감 났어요.
❸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배우는 자세로,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삼정인이 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아,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턴트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❹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잘하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모르는 것은 배우고 실수에서는 성장의 기회를 찾자!"



이동연 Consultant (SG)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글과 영상으로 만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인도네시아 Korea Desk 편

풍부한 천연자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인도네시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현지의 규제와 제도, 복잡한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인도네시아 Korea Desk에 파견 중인 안재형 S.Manager를 만나, 변화하는 현지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 과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오랜 경험과 전문성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Korea Desk

인도네시아 Korea Desk는 10년 이상 축적해 온 경험과 현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감사 업무 과정에 참여해 한국 기업과 현지 감사팀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인도네시아의 회계 및 규제 환경을 고려해 감사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컨설팅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연계해 한국 기업의 요구사항과 현지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성을 잇는 가교로서,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사업 운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Contact: 안재형 S.Manager Jaehyoung.An@kpmg.co.id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에 관한 인사이트와 현지 라이프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천연자원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국내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니켈을 중심으로 한 자원산업이다.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수출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제련·가공을 확대해 전기차와 배터리 등 다운스트림 산업으로 연결하는 한편, 관련 밸류체인을 자국 내에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최근 천연자원 수출 관리 강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6년 도입된 Government Regulation No. 24 of 2026은 석탄, 팜유, 페로합금 등 전략적 천연자원의 수출을 정부 지정 국영기업을 통해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아울러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와 관련 국영기업의 역할 변화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략자원의 생산과 가공뿐 아니라 수출과 수출대금 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관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략자원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국내에 보다 많이 남기고, 자원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개별 규제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재정·산업정책과 국영기업의 역할 변화가 기업의 사업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전기차·배터리 생태계를 비롯해 에너지, 화학, 인프라 및 고부가가치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의 사업 기회와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 디지털 및 AI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산업 육성 방향과 투자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KPMG 인도네시아 오피스 전경



복잡한 현지 환경에 대한 이해와 맞춤형 진출 전략이 필요해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실업률 상승과 통화가치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MSCI가 인도네시아를 주요 벤치마크 지수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큰 내수시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구축해 온 사업 기반도 중요한 강점이다. 다만 지역별 특성이 다양하고 비즈니스에서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데다, 규제와 사업 관행 역시 복잡해 현지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현지의 규제 환경과 고객 수요, 사업 관행 및 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진출 초기부터 세무와 규제 리스크를 사업전략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법인 설립이나 투자·거래구조를 확정한 뒤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구조 변경이 어렵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와 세무·관세, 이전가격 등 주요 규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국 본사와 인도네시아 법인 간 거래와 역할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품과 용역, 로열티, 자금거래 등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거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평소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현지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본사와 긴밀하게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 경영진과 전문가가 실제 사업환경에 맞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고객 초청 세미나 - Corporate Reporting Updates


골프를 통한 고객사와의 친선 교류


고객 초청 세미나 - Board Governance Forum



제안 발표 이후 고객사와 함께 기념 사진을!



Townhall Meeting에서 Head of Audit과 함께

빠른 결정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소통 문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차이는 '업무 속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의사결정부터 실행까지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편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상대방과 관계를 형성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저 역시도 한국식 관점에서 "왜 바로 결정이 안 되지?", "왜 회신이 조금 늦지?"라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현지에서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오히려 이후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의 빠른 실행력이라는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인도네시아의 관계 중심적인 소통 방식과 현지의 업무 속도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ABC의 비밀

얼마 전 인기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보듯이 회사는 누가 나가더라도 별 영향이 없다. 반면에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과 퇴임 후 회사 밖에서 인정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력서 종이에 적힌 경력과 타인이 돈을 내고 사려는 '가치'와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가 명함이라면 후자는 개인의 브랜드와 콘텐츠다. 회사 직함이나 타이틀이 아닌 PI(Personal Identity)야말로 삭막한 정글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강력한 무기이며, 자신만의 전문 콘텐츠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자산이다. 이와 관련해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Alex Karp)는 명문대 졸업장을 과신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남들이 안 가는 영역에서 독보적인 실력으로 증명하라고 강조한다.

내 인생의 ABC

통상 우리는 가장 기본을 가리켜 ABC라고 부른다. 그러나 인생에서 ABC를 갖춘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AI(인공지능)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첫째, Attitude
둘째, Brand
셋째, Contents

우선 A(Attitude)는 태도·자세다.
기자불립(企者不立)! 일찍이 노자는 인격적 충전 없이 앞서려는 건 발끝으로 오래 서 있으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서양에선 인성이 결핍된 사람을 '펑크 난 타이어(Flat tire)'에 비유한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인성이 뒤틀린 자는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으나 태도는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은 모든 조직의 성경 말씀이다.

다음은 브랜드(Brand)이다.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고유한 상징이 필요하다. 이게 브랜드 파워다.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아직 브랜드가 아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선 '무엇(What)'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Who)' 말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콘텐츠(Contents)이다.
개인의 콘텐츠란 자신만이 가진 차별적 전문성에 기초한 유니크한 내공이다. 그러나 명성이 높다고 콘텐츠까지 훌륭한 건 아니다. 명성이 높은 강사를 강연에 초대해서 실망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

ABC형 인간

과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출간으로 일약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로버트 기요사키는 모범생이 부자가 될 수 없는 핵심적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는 우선 인간을 세 가지(A형, B형, C형)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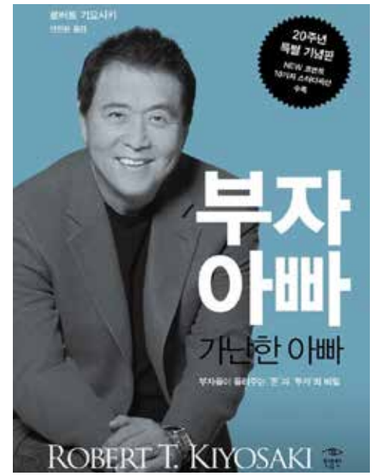


사진 출처: 민음인 출판사

여기서 알파벳은 대학 학점이 아니다. A는 'Academics(학자형)', B는 'Bureaucrats(관료형)', C는 'Capitalists(자본가형)'를 뜻한다.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자란 학자형 학생은 봉급 생활자가 되어 돈 많은 자본가형 밑에서 일하고, 위험을 피하고 조직의 보호에 숨으려는 관료형 학생은 공무원이 된다는 뜻이다. 왜 A학생은 C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B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 결국 변화를 읽는 태도와 위험을 무릅쓰는 '자기 콘텐츠'의 유무가 인생의 계급을 바꾸기 때문이다.

****
변화의 ABC 이론도 있다. 감정(Affect), 행동(Behavior), 인지(Cognition)는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체계다. 그 외에 디지털 전환(DX)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ABC도 있다. 여기서 ABC는 A(AI), B(Big Data), C(Computing)이다.

이걸 알아채면 입에선 저절로 "아하~"라는 말이 나오며 무릎을 '탁' 치게 되어 있다.
이른바 <AHA 법칙>이다.
A: Attitude / H: Humor / A: Action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칼럼니스트
베스트셀러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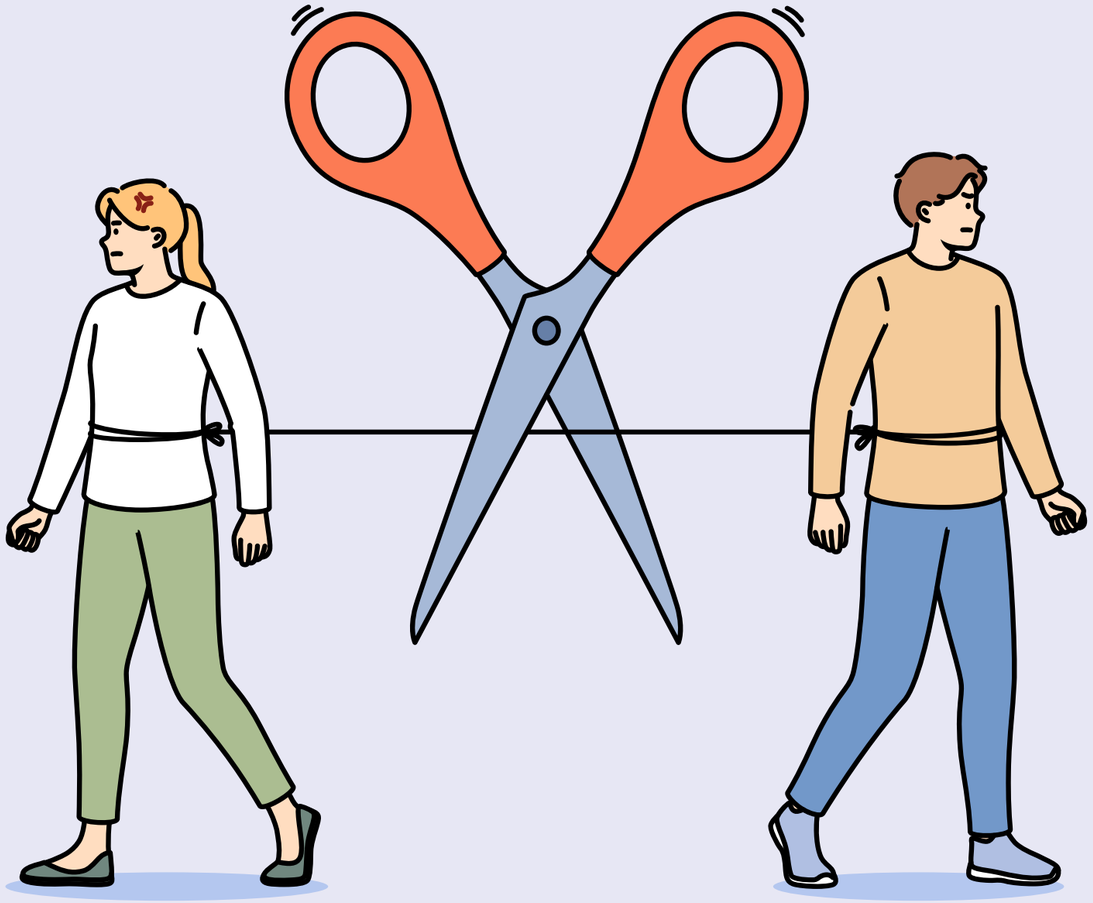
인기 칼럼니스트(조선일보·헤럴드경제/국제 PEN클럽 정회원) 및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초대형 교보 〈광화문글판〉 선정 작가이다. 현재 서울벤처대학원 초빙교수,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유니크한 언어의 쇼츠, 「두줄칼럼」은 인문·경영의 융복합 구성으로 AI 시대 인간만의 생각 품질을 높이고 영감을 주는 지적 아포리즘 결정체다.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손절’의 시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성

상처받기 두려워서, 손해 보기 싫어서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는 시대. 요즘을 일컬어 ‘손절의 시대’라고 한다. 더 이상 참거나 버티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관계를 쉽게 끊는 것만으로는 깊이 있는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결국 우리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것은 오랜 시간 뿌리내린 진정성이다. 손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성은 무엇인지, 심리상담사와 함께 살펴본다.



보이지 않는 뿌리줄기, 진정성

손절. 그리고 ROI(투자 대비 수익률). 2027년의 트렌드를 관통하는 이 두 단어는 오늘날 직장인들의 서늘한 생존 공식을 보여줍니다. 내가 들인 시간, 감정, 노력만큼 즉각적인 성과나 보상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관계를 끊고, 업무를 포기하며, 때로는 속해 있는 조직마저 미련 없이 ‘손절’해 버립니다. 상처받지 않고 손해 보지 않으려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즉각적인 가성비와 손절의 잣대로만 재단할 때, 우리의 커리어와 삶은 얄팍한 거래처 장부로 전락하고 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다고 해서 싹이 트기도 전에 매번 땅을 엎어버린다면, 그 어떤 식물도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융(Carl Jung)은 삶의 본질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언제나 내게 뿌리줄기에서 살아가는 식물처럼 여겨졌다. 삶의 진정한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은 채 뿌리줄기 속에 숨어 있다. 땅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은 단 한 번의 여름을 살 뿐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피었다가 지는 꽃이다. 뿌리줄기는 남는다.”

융이 통찰한 ‘보이지 않는 뿌리줄기’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성(Authenticity)’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남들에게 보이는 그럴듯한 타이틀, 분기별 KPI 달성, 성공적인 프로젝트, 일시적인 인정은 한 철 화려하게 피었다가 이내 시들어버리는 꽃에 불과합니다. 내 삶과 커리어를 정말 나답게 만드는 진정성은, 그 화려한 꽃이 지고 난 뒤 앙상해진 겨울에 비로소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정성은 묵묵히 버티는 미련함 속에서 자라난다

어떤 업무나 기술을 익힐 때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지루한 ‘평원 구간(Plateau)’, 혹은 조직 내에서 관계에 부딪히며 소모된다고 느껴지는 커리어의 겨울이 오면 우리는 가장 강렬한 손절의 유혹을 느낍니다. ‘아무리 투자해도 ROI가 안 나오니 여기서 끝내자’며 섣불리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러나 진정성은 당장의 이익이 보이지 않을 때 묵묵히 버티는 미련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실력을 벼리는 고독한 시간,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아가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과정, 실패를 곱씹으며 맷집을 기르는 그 지난한 시간들이 모두 땅 밑으로 사방팔방 뻗어나가는 뿌리줄기가 됩니다. 손해 보는 것 같은 이 축적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성급히 손절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기준에 맞춰진 ‘가짜 삶’의 표면만 평생 맴돌게 될 뿐입니다.

AI 시대, 인간만이 지닌 무기 ‘Human Edge’

기계가 인간의 지적 노동을 실시간으로 대체하는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프롬프트 몇 줄이면 누구나 그럴듯한 기획서와 번듯한 결과물을 찍어내는 세상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무기는 ‘인간만의 진정성(Human Edge)’입니다. 효율과 계산만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영역, 스스로 선택하고 기꺼이 감내하는 주도적인 고독(홀로움) 속에서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사유하고 경험을 축적한 사람만이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통찰을 끄집어냅니다.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순간순간 ROI가 안 나온다고 바보같이 버텼던 그 진정성 있는 시간들이 모여 궁극적인 ‘인생의 ROI’를 완성하는 셈입니다.

당신의 직장 생활은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성과라는 꽃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겨울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에 삶의 궤적을 섣불리 끊어내지 마십시오. 겉보기엔 멈춘 것 같아도, 얼어붙은 땅 아래에서는 당신만의 진정한 삶이 단단한 뿌리줄기를 뻗어내며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견뎌낸 진짜 삶만이, 다가올 봄에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 출처: 장르만 여의도. (2026, 10월 25). “나는 내가 밥도 다 사줬는데!!?” 정영진 억울! [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G7f0t2BKwSc
이승욱. (2026, 8월 28일). 삶의 진정성은 어디 있을까. 휴맨레터. https://human-therapy.stibee.com/p/46

Profile

설진미

삼정KPMG
전임 심리상담사

성균관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고려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으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임상심리실에서 슈퍼바이저로 경력을 쌓았다.
현재는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10년간 일하며 심리상담, 조직컨설팅, 강좌 및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조직에 속한 직장인들을 만나 삶의 불안과 고통, 갈등을 성찰하고 성장을 모색해 왔으며, 조직문화를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제9회 회계의 날’, 회계 업계 발전 기여한 임직원 11명 표창 수여

지난 10월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9회 회계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금융위원회는 매년 ‘회계의 날’을 맞아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계 업계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올해는 삼정KPMG 임직원 총 11명이 표창을 수상하며 법인의 위상을 높였다.
한편, ‘회계의 날’은 2017년 신(新)외부감사법 공포를 기념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민간 주도로 제정됐으며, 202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_ **양승열 대표 (Risk Management)**
- 감사원장 _ **김연정 전무 (IM4)**
- 금융위원회 위원장 _ **한상현 상무 (Q&RM-DPP)**
- 국세청장 _ **이근우 전무 (Tax2)**
- 금융감독원장 _ **김정기 전무 (ICE2)**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_ **서민호 전무 (Deal Advisory2), 허재훈 전무 (ICE3), 조일상 전무 (CM1), 최연주 S.Manager (CM1), 김용년 이사 (BD&Markets), 박현주 이사 (회계팀)**

삼정KPMG Tax Professor상 초대 수상자에 홍기용·배성호·김완용 교수 선정

한국세무학회는 삼정KPMG의 후원으로 올해 신설한 삼정KPMG Tax Professor상의 초대 수상자로 홍기용 인천대 교수, 배성호 경북대 교수,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를 선정했다. 이번 상은 세무학의 학문적 발전과 조세정책·조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수상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시상은 학문적 업적과 학회 발전 기여를 인정하는 ‘Distinguished Tax Professor’ 부문과 우수한 연구성과 및 학술 활동 공헌을 기리는 ‘Scholarship Tax Professor’ 부문으로 나뉜다.
‘Distinguished Tax Professor’ 부문 수상자인 홍기용 교수는 세무학 및 조세정책·조세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세무학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Scholarship Tax Professor’ 부문 수상자인 배성호 교수는 우수한 연구성과와 학회 임원 및 학술지 편집위원장으로서의 활동, 학술연구와 후학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같은 부문 수상자인 김완용 교수는 우수한 연구성과와 학회 주요 보직 및 학술지 편집 활동을 통해 조세정책과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2026 수입차 업체 대상 세미나’ 개최



삼정KPMG가 10월 2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2026 수입자동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인공지능(AI) 기술 적용부터 리스크 관리, 회계·세무·관세까지 수입차 업계가 주목해야 할 주요 현안과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 동향 ▲리스크 관리 ▲회계·세무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글로벌 자동차 산업과 한국 수입차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수입차 비즈니스에 AI 기술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수입차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등 주요 리스크 관리 사례와 정보보호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수입차 관련 주요 회계·세무 및 관세 이슈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실무 대응 방안을 제언했다.

*Contact:
김현석 상무 hyunsukkim@kr.kpmg.com

일본계 기업 대상 ‘회계·세무 및 경영자문 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국내 진출 일본계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회계·세무 및 경영자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계 기업들이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회계·세무·관세 등 주요 제도의 변화와 최신 이슈를 점검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생산성 극대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현장에는 일본계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한·일 양국의 회계기준 개정 동향을 비롯해 ▲세무조사 및 이전가격 이슈 ▲글로벌 최저한세 및 2026년 주요 세법개정안 ▲최근 관세조사 동향과 신규 제도 ▲AI 기반 업무 효율화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살펴봤다.

*Contact:
정창길 전무 changgiljung@kr.kpmg.com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부산진해경자청과 MOU, 'BJ-INVESTIA' 투자기업 전문 회계·컨설팅 지원 강화

삼정KPMG가 10월 20일,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 'BJ-INVESTIA'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삼정KPMG의 Consulting 1부문 리더인 김진귀 부대표와 경자청 박성호 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J-INVESTIA'는 외국기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입지·설계 ▲투자·설립 ▲금융·인센티브 ▲통관·물류통상 ▲인력·정주 ▲혁신성장 등 6대 분야를 공공·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연결하는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이다.

이번 협약은 투자기업이 투자 검토부터 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직면하는 다양한 전문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회계·컨설팅 분야의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한 기업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 및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립, 금융·인센티브 등 투자 과정 전반에 필요한 전문 자문과 컨설팅을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Consulting Service1 본부장 인사 단행

삼정KPMG는 10월 26일자로 Consulting Service1(CS1) Function의 전략 실행과 지속가능한 본부 운영을 위해 본부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RC본부장에 정우철 전무, FC본부장에 정대권 상무를 임명했다. 또한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에 최종원 상무, Lighthouse Center Leader에 정기준 상무를 각각 임명했다. 삼정KPMG는 이번 인사를 통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전략 실행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문 역량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Tax 외부전문가 특강 진행



삼정KPMG Tax본부는 구성원의 전문 역량과 리더십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온·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했다.

9월 2일에는 Manager 이상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가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과 가상자산 과세'를 주제로 강의했다. 참석자들은 비트코인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화폐 질서의 변화와 가상자산 과세의 적정성 및 정책 실효성 등을 살펴봤다.

이어 10월 1일에는 S.Manager부터 Director까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리더의 멘탈 수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자로 나선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윤대현 교수는 리더가 스스로를 돌보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하며,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전했다.

Notice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에서 세미나 개최합니다!



- **주제** – AI·디지털 자산 기반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 **일시** – 2026년 11월 25일(수) 15:00-16:00
-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 aT센터
- **참가 신청** –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및 강연 주제	발표자 및 좌장
15:00~15:01	1'	오프닝 - 프로그램 소개	· KPMG 김문섭 상무
15:01~15:12	11'	새로운 시대의 금융과 K-핀테크 스케일업 방안	· KPMG 정대영 팀장
15:12~15:20	8'	프로젝트 판게아: 흩어진 외환시장을 하나로 잇다	· 페어스퀘어랩 김준홍 대표
15:20~15:28	8'	에이전트 결제를 넘어, 에이전트 경제로: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만드는 새로운 금융	· DSRV 엄정용 리드
15:28~15:36	8'	핀다저축은행이 만들어가는 AI 네이티브 뱅킹의 모습	· 핀다 이혜민 대표
15:36~15:44	8'	금융 AI의 다음 단계: 도입에서 핵심 업무 혁신으로	· Microsoft 윤효석 매니저
15:44~16:00	16'	패널 토론: K-핀테크의 글로벌 생존전략	· (좌장) 강정석 대표(에이젠글로벌) · (패널) 김준홍 대표(페어스퀘어랩), 엄정용 리드(DSRV), 이혜민 대표(핀다), 윤효석 매니저(Microsoft)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www.kpmgacademy.co.kr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NEW **IPO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신규 오픈!**



삼정KPMG 아카데미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KPMG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 IPO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세미나 다시보기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 신규 구독 /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